결혼은 현실이다! 그럼 신앙은?

(눅8:1-3)

1.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2.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결혼은 현실이다! 그럼 신앙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 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결혼정보회사 중 하나인 '행복출발'이라는 회사가 천 명이 넘는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는 35세 이상, 여자는 33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조사내용이 '결혼을 현실로 느낀 나이가 몇 살 때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평균 32.4세, 여자는 30.3세에서 결혼이 현실로 느껴졌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평균 초혼연령이 남자 31.9세 여자 29.1세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결혼한 후에 대부분 결혼이 현실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미세한 차이로, 초혼연령의 평균나이가 조금 어리니까 결혼한 뒤에 남자들은 한 5개월 있다가 '아,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걸 느낀다면, 여자들은 1년 2개월 정도 있다가 그걸 느낀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간…

여러분!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뜻이 무엇입니까?
여성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결혼 전에는 그 남자만 있으면 평생 라면만 먹고 월세방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하고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이 뜯어말려도 그렇게 학벌도 좋지 않고 직업도 불분명한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만류해도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확신을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일 년쯤 지나 2년쯤 지나다 보면 그 연애 때의 행복함이 지속되는 유통기한이 3년 이상을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옷 사야지, 먹을 것 사먹어야지, 동창회 갈 때 백 하나쯤 제대로 된 게 있어야지, 자식이 생기면 몇 십만 원, 심지어 100만원 200만원 하는 유치원에 보내야지, 모든 게 돈이 있어야 되고…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결혼은 현실이다'
또 돈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고부간의 문제가 있고 형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저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든 직업이 불분명하다고 말하든 상관없이 그 남자 하나면 되는데, 이제는 그 능력 없다는 남자 플러스 시부모, 시동생, 그리고 시댁에서 일어나는 제사며, 이건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현실입니까?
'신앙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자가 32.4세에 여자가 30.3세에 '결혼은 현실이다'라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31세가 되면 이제 결혼은 좋은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뜨거운 정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저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경우에 내 현실 삶이 어떠한 질로 정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애초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결혼이 현실이라는 자각이 생긴 남녀가 결혼을 계산하듯이 신앙을 아예 계산적으로 시작해서 신앙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대,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복 받는대!' 이렇게 현실 문제를 계산해서 '신앙은 현실이다'라는 의미에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고, 예수님과의 결혼이라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을 때,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그 때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의 감격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격이 연애 때 뜨거운 감정으로 결혼했던 여자가 1년 2년 지나면서 그 남자의 자리에 삶의 현실이 들어차고 대체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예수님에게 현실 문제를 응답 받고 해결 받느냐'로 바뀌어버리는 신앙.
자, 그래서 신앙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이 현실인 것처럼 신앙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나라를 선포하고 다니실 때 두 부류가 예수님과 함께 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한 부류에는 여자들이 언급됩니다.
그 여자들의 대표격으로 누구를 언급하는가 하면, 일곱 귀신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정신이 멀쩡해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여전도회장인 셈입니다.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나라는 사람은 헤롯왕의 청지기였던 남편을 둔 여자, 그러니까 꽤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곱 귀신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생활 자체가 풍부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는 단서를 남겨줍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신앙의 두 가지 형태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현실인 부류와 신앙이 현실이 아닌 부류.
마치 결혼이 현실인 그런 여자들과 결혼이 현실이 아닌 여자, 뭐 이런 여자가 있겠습니까만.
결혼이 현실이 아닌 상태로 지속될 수 있는 여자, 결혼 전 남자친구가 애인으로서 좋았던 그 감정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삶의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 남자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여자가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남자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신앙의 이 두 가지 부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해 주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 소유로 섬겼다는 이 여자들을 비교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만 갖고는 어떤 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가짐, 지금 예수님을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 이 여자들의 마음가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야 어떤 마음인지 드러나니까,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비교하는 게 타당하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맙니다.
반면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심지어 무덤에까지 가서 죽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섬김을 끝까지 하고 싶어 안달이 나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그 신앙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사건 앞에서 그동안 신앙이 현실이었던 제자들의 신앙상태가 그렇게 표현되었고, 신앙이 현실이 아니었던 여자들의 신앙이 또 그렇게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은 누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고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에게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이 상태로부터 제자들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도 자기 소유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배를 버리고 직업을 버립니다, 어부들은 배를 버렸지만 마태 같은 세리는 그 좋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직업을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기 소유를 버린 것은 버린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투자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다윗왕의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나라를 독립시켰을 경우에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떡고물을 향해서 예수님께 투자를 한 것입니다.
반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여자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던 것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찾아가야 될 행복지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야 될 기쁨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심 그 자체로 여자들은 행복이 끝났고, 기쁨의 근거가 끝났고, 만족이 완성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만족할 수 있는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쟁취해야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얘기에요.
여자들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지만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섬긴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을 보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과의 경우에서는 제자들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제자들이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그 판단을 따라 제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시려면.

자, 뭐가 신앙입니까?
남자가 32.4세가 되고 여자가 30.3세가 되어서 결혼을 현실 문제로 따집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연애 때 그 남자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도, 결혼하고 나서 쌀이 있어야 밥을 하고, 돈이 있어야 고기를 사고, 돈이 있어야 아이를 키우고 남부럽지 않게 교육의 기회

를 주고, 또 시부모와 시댁식구와 부딪혀야 되는 이 현실의 중압감 속에서 결혼 전에 남편 때문에 기뻤던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여자가 없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남자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랬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이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예수님 믿고 현실 문제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잘된 사람이 신약성경 안에 누가 있습니까?
신약성경 전체를 돌아봐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현실 문제가 잘 풀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모든 현실 문제가 그렇게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샬롬을 느끼고 더욱더 평강을 느끼고 더욱더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인간이 인생 동안에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사도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노래하고 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앙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이 말이 더 진실 된 것이고 오히려 결혼이 현실이 아닌 상태, 그 들떠서 뜨겁게 연애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속임수일지도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좋은 남친이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 뭐라고 했지요?
사실에 내 마음을 쏟아 부을 때 그 사실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남자친구가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첫 번째 현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돈이 내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될 첫 번째 현실로 바뀐 것이거나 자식이 첫 번째 현실로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그 자식을 잘 키우자니 첫 번째 필요한 게 남편보다도 돈이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1차 현실이었다가 2차 현실 3차 현실, 자식과 돈과 심지어 내 여자형제보다 더 뒤로 밀려나서 4차 5차 현실이 되니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남편이 끝까지 첫 번째 현실이면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자기 소유로 섬겼습니다.
이 여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무엇이 주어져야 된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뭘 줄 수밖에 없게끔 강요하거나 바라거나 소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께 드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이란 게 뭡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이 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받아들여진 이 연합관계 이후에는 더 이상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께 달라 소리 안 합니다.
마치 그런 여자가 있겠습니까마는, 한 남자와 결혼해서 남자 때문에 완전히 만족하고는 아무리 가난해도 불평을 모르고 남편만 있으면 된다 하고 사는 그런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만난 뒤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바랄 게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소유를 일시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소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장하고 늘리려고 자기 소유를 일시적으로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에요.
자기 소유를 더 큰 차원으로 고양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이 현실로 바뀌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현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야 돼요.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첫 번째 현실로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럴 때, 남자가 너무 좋아서 이 세상 형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남편의 능력대로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가지고 그냥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좋아서 만족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 세상의 형편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이 주어지면 많이 주어진 대로 쓰고 살면 되는 것이고, 돈이 안 주어지면 안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죽게 되면 죽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죽는 겁니다.
주시는 대로 받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것, 하나님나라가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신앙은 이 세상은 해결해야 되는 현실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과정은 그냥 현실이 어떠하든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경험적으로 맞아요.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을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해주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현실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한분으로 온전히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끝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섬김의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한 삶의 내용이라는 얘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결혼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의 현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